

풍속·수난·영광의 현장들

「사진으로 보는 朝鮮時代」
 「사진으로 보는 朝鮮時代」속
 「사진으로 보는 近代韓國」上·下
 「사진으로 보는 獨立運動」上·下
 서문당/A4변형/각권 224면 내외/각권 15000원

「격동의 시대」, 「번혁의 시대」 등으로 일컬어지는 한국근대사의 사진집이 출간되어 그 시대를 실감있게 이해하려는 독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서문당은 작년 6월과 11월 각각 나온 「사진으로 보는 조선시대」와 「사진으로 보는 근대한국 상·하」(근대조선1)에 이어 「사진으로 보는 조선시대·속」과 「사진으로 보는 독립운동 상·하」(근대조선2)를 최근 출간했다. 모두 2천여점의 기록사진이 수록된 이 시리즈는 각계의 호응을 얻고 있는데, 「근대조선1」은 4번째 돌입하였으며 「근대조선2」는 출간된 지 불과 며칠만에 재판제작을 서두르고 있다.

주로 국학관계 도서관행에 치중해 온 서문당의 대표인 출판계의 중견 崔錫老씨는 『산재한 사진을 모아 복원하여 총정리하려 하였고 특히 독립운동관계 자료들을 통하여 대일관계의 올바른 인식에 기여하려 한 것』이라고 기획 취지를 설명한다. 따라서 이 사진집들은 자료적 가치뿐 아니라 교육적 가치도 갖고 있다고 그는 강조한다.

「사진으로 보는 조선시대·속」은 서당·시장·궁궐·민속놀이·기생의 생활·관혼상제·사찰 등 20세기초(주로 1910년 이전)의 先人들의 생활과 풍속의 사진을 생생하게 담

처음 공개되는 사진, 사라진 풍속사진 등 희귀한 자료를 통해 역사적 현장을 새롭게 조명하고 있다.

고 있어 「...조선시대」에서 누락된 부분을 보충하고 있다.

또 「사진으로 보는 독립운동 상·하」는 개항이후 서양열강의 각축장이던 조선의 수난으로부터 일제의 침략과 의병투쟁, 3·1운동과 그를 전후한 국내외의 독립운동,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 경제수탈의 현장, 광복군의 항쟁 그리고 해방의 모습까지 민족의 수난과 저항의 장면들을 적절한 해설뿐 아니라 당시의



간도 이주민의 가을 타작마당, 「사진으로 보는 獨立運動」上에서

관련記事까지 동원하여 보여주고 있다. 출판사측에 따르면 자료는 주로 일본의 國書刊行會, 개인소장, 일제하에서 발간했던 지방郡誌 등에서 찾았다고 한다.

그동안 근대의 풍물이나 역사적 현장을 담은 사진이 소개되지 않은 건 아니나 이 시리즈처럼 모든 자료가 종합적으로 소개된 것은 없었다. 86년 朝鮮日報社에서 프랑스 신문에 실린 우리나라 관계 삽화를 묶어 내 놓은 「격동의 구한말 역사의 현장」은 구한말 조선의 비운을 생동감있게 기록하고 있기는 하나 신문의 삽화라는 한계가 있었다는 평판이다. 이에 반해 이번 시리즈는 희귀 사진자료의 가장 방대한 편집이라는 점과 사진이 그 속성으로 갖고 있는 사실성과 역사적 기록이라는 측면이 특징으로 부각되고 있다.

앙리 마티스가 「사진은 실재하는 가장 정확한 기록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한 것처럼 사진은 그 기록의 정확함이나 생생한 현장감에 있어서 역사나 문학의 기록성과는 비견할 수 없는 호소력을 갖는다.

우마차를 타고 두만강 건너 간도 龍井으로 떠나는 한국인의 모습을 담은 사진과 간도 이주민의 가을 타작마당의 장면(사진이 있다. 이 광경을 서술한 역사서의 한 부분을 보자.

『식민지 농업정책의 결과로 절대적인 빈곤에 빠진 농민들은 결국 농촌을 떠나지 않을 수 없었다. (중략) 이농인구는 최악의 경우 결인이 되거나 아니면 산으로 들어가 화전민이 되었으며 혹은 일본·만주·시베리아의 노동시장으로 흘러 들어갔다』(姜萬吉, 『韓國現代史』 중에서)

또 당시의 작가 崔曙海는 「脫出記」에서 동일한 사건을 한 개인의 체험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김군! 그러나 나의 이상은 물거품처럼 돌아갔다. 간도에 들어서서 한달이 못되어서부터 거친 물결은 우리 세 생령의 앞에 기탄없이 몰려 왔다. 나는 농사를 지으려고 밭을 구하었

다. 빈 땅은 없었다. 돈을 주고 사기 전에는 한 평의 땅이나마 손에 넣을 수 없었다』

같은 대상이라도 역사는 보편적인 사실들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기술한다. 또 문학은 주관적인 체험을 개별적인 사건을 통하여 전체의 체험으로 보편화시키는 특성을 지닌다. 그런데 사진은 개별적인 사실을 객관적으로 그려낸다고 알려져 있다. 개별적인 사실을 다루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객관적 태도를 취하기 때문에 냉정하다.

지게 위에 꿩을 잔뜩 맨 힘들고 추위에 지친 표정의 한국인과 두꺼운 외투를 입고 웃으며 당당한 걸음걸이를 하고 있는 일본군이 잘 대조되어 있는 사진(「독립운동·상」 52면)은 러일전쟁당시 일본의 기고만장하던 모습과 외국의 전쟁터가 되어 민족적 자존을 잃어가던 애소환 한국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낸다. 또 3·1운동 당시 사진중에는 광화문 기념비각에 가득 모여 일경의 폭력적 시위진압을 안타깝게 지켜보는 모습들, 체포된 조선인의 머리를 작두로 자르는 목불인견의 기록사진도 포함되어 있다. 해방을 맞아 서울 남산의 국기 게양대에 처음으로 태극기가 게양되는 감격의 장면(「독립운동·하」 191면)도 처음으로 공개되고 있다. 지금은 사라진 풍속사진도 많다. 무릎 꿇고 앉은 學童과 회초리를 든 훈장, 장옷 쓴 여인, 笞刑장면, 국과 농악, 을축대홍수 때의 시체발굴광경 등 민중의 숨결이 살아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사진들도 볼 수 있다. (「조선생활·속」) 그러나 우리의 주체적인 시각이 아니라 수탈이나 침략의 측면에 초점을 맞춘, 일본인의 시각으로 사진이 촬영되었다는 점은 끝내 아쉬움으로 남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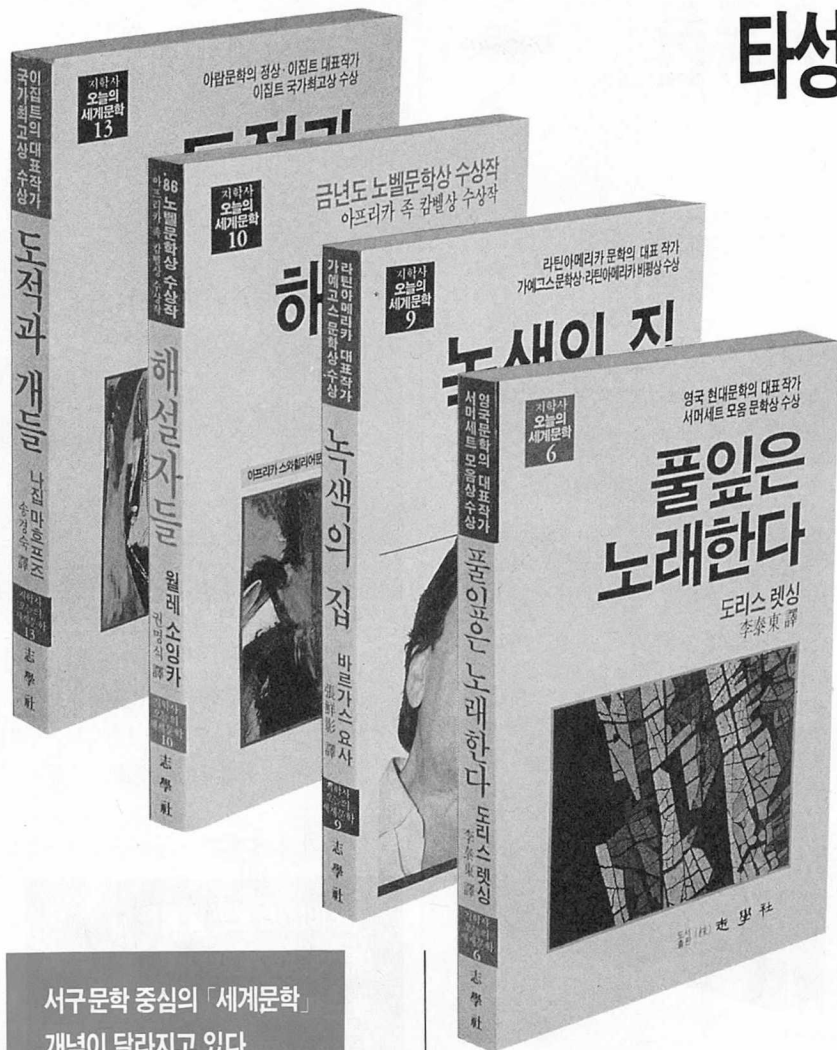
그러나 전쟁사와 피난생활로 이루어지는 「한국전쟁」과 분야별의 「사진으로 보는 근대사」 등으로 계속될 이 시리즈는 선인들이 겪은 영욕의 모습을 통하여 오늘을 되새기는 교훈적 효과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엄창호 기자



타성적 目錄에의 도전

「오늘의 세계문학」 전23권
 志學社/A5신/각 400면 내외/각권 3500원



서구문학 중심의 「세계문학」 개념이 달라지고 있다. 제3세계권 작품 중심의 이 전집은 외국문학수용의 새로운 시각을 보여준다.

세익스피어, 괴테, 톨스토이, 앙드레 지드, 헤르만 헤세, 스탕달... 세계문학전집이라면 으레 그들의 대표작으로 널리 알려진 작품을 거느리고 버젓이 한 자리 차지하고 있을 단골 손님들이다. 그러나 이와같이 틀에 박힌 작가와 작품으로 구성된 기존의 「세계문학전집」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기획과 의도로 출간되는 세계문학전집이 있어 관심있는 독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지학사의 「오늘의 세계문학」 시리즈가 바로 그것.

작년 5월 아프리카의 대표작가인 치누아 아체베의 「神의 화살」(권명식 역; 출간 직후 1986년 노벨상 후보에 오름)을 처음 출간한 이래 지금까지 미셸 투르니에(佛), 도리스 렛싱(英), 86년 노벨상 수상작가인 윌레 소잉카(나이지리아)를 비롯 각 대륙의 대표작가로 평가 받는 23명의 대표작품들이 번역되어 시판되고 있다. 날권 시리즈의 이 전집은 올해 말까지 1차분인 36권을 내며 총 1백권을 목표로 완간을 서두르고 있는데, 작품선정과 번역의리는 모두 끝난 상태라고.

세계문학작품이 전집의 형태를 띠고 우리나라에 처음 등장한 것은 1950년대이다. 그 이전까지는 대체로 일역판에 의존하거나 극소수의 외국문학 전공자만이 원서를 통해 세계문학과 접했다. 그러다가 휴전직후인 1953년 靑樹社에서 「世界文學選集」이라는 이름으로 카뮈의 「異邦人」이 李彙榮에 의하여 번역되고 그 후 10권이 더 간행되면서 일반인들도 세계의 유명작품들을 널리 읽을 수 있게 되었다. 세계문학전집류는 그 후 끊임없이 여러 출판사에 의해 간행되었다. 국립중앙도서관의 자료에 따르면 지금까지 간행된 세계문학전집류는 60여 종에 이른다. 청소년용 혹은 줄거리요약으로 나온 부실한 것들을 포함시키면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그 중에서 乙酉文化社의 1965년판 「世界文學全集」과 금성출판사의 1981년판 「世界文學大全集」은 총 100권씩으로 가장 많은 작가와 작품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과연 세계문학전집류 간행의 양적 팽창은 세계문학 이해의 질적 심화를 동반하고 있는 것인가, 작가와 작품 선택, 번역의 공정성의 기준은 어디에 두어야 할 것인가는 일단 짚고 넘어가야 할 과제.

지학사의 金年均 교양과장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다.

『지금까지의 세계문학전집에는 18-19세기 이전의 서구문학이 주종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번역도 일본어판의 중역이 대부분이었고 작품선택도 일본의 선정기준에 의거했었습니다. 이러한 타성 때문에 세계적으로는 알려졌으나 우리나라에는 알려지지 않은 높은 수준의 작품, 특히 제3세계권의 우수한 작품들이 버려져 있었어요. 이를 소개함으로써 기법과 사상이 첨예화되고 광범화된 세계문학의 흐름을 파악하여 지식의 폭을 넓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시작했습니다』

어렵고 힘든 작업이었지만 누군가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할 일을 한다는 사명감이 이 계획을 추진시키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이다.

지학사가 이 작업에 착수한 것은 1985년 초

의 일. 각국의 문학관련 원전자료, 외신, 한국 주재 대사관과 문화원 그리고 당사국에 오래 머문 교수들에 의뢰하여 각 대륙의 대표작가와 작품을 추천받아 작품을 선별했으며, 선정의 대상은 그 나라의 유명한 문학상 수상작이나 노벨문학상 후보작으로 하였다고 한다. 번역역은 반드시 원전에 의거하되 그 나라의 방언, 풍속 등에 익숙한 전문가에 의뢰하였다는 것.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의 대표작가 뿌라무디아 아난파 토르의 「조국이며 조국이며」는 말레이시아 문예진흥원 초청으로 그곳에 체재하여 한국문학을 번역 소개한 바 있는 丁榮林씨가 맡았으며, 이집트작가 나집 마흐프즈의 「도적과 개들」은 아랍어를 전공하고 요르단대학에서 수학한 송경숙씨가 담당하였다.

노벨문학상의 공정성이 인정된다면, 노벨문학상 후보에 오른 작품은 그렇지 못한 작품보다 그 문학성에 있어서 세계적인 인정을 받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또 그 후보작은 앞으로 도 항상 노벨상을 넘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 시리즈에 있는 아프리카 대표작가 시옹 오와 은구기의 「아이야 울지마라」, 영국 도리스 렛싱의 「풀잎은 노래한다」, 남아연방 나디고디머의 「보호주의자」, 스위스 막스 프리쉬의 「거인 슈틸러」 등은 모두 후보에 올랐던 작품으로 수상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아프리카의 대표작가인 윌레 소잉카의 「해설자들」은 출간 직후에 수상이 결

정되기도 했다.

「오늘의 세계문학」이 제3세계권의 작가와 작품들에 관심을 보이게 된 한국출판계의 배경은 70년대 말부터 사회과학분야와 문학비평에서 제3세계의 현실과 그에 관련된 이론에 주목하였던 분위기와 연결될 수 있다. 특히 문학비평에서는 제3세계문학의 건강성과 민중의식을 높이 평가하고 우리문학의 진로를 제3세계문학권 전체 속에서 새로운 시각으로 모색하려는 시도를 보인 바 있다.

이와같은 사회적 흐름을 타고 외국문학의 주체적 수용이라는 기치를 내걸며 제3세계권의 작가와 작품에 관심을 두면서 이를 세계문학전집으로 집약해보려는 의도는 1981년 한길사의 「한길 세계문학」 시리즈에 의해 처음으로 이루어졌다. 당시 이 출판사가 밝힌 창간취지는 『세계문학을 수용하는 주체적 시각을 정립해야 할 단계에 이르렀다』는 자각과 『구체적으로 그것은 세계문학 간행에 있어서 식민지적 흔적으로 지적되는 작품선정방식으로부터 탈피하여 세계문학 개념의 폭을 확대하는 작업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라는 실천 방법에서 알 수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 간행된 작품집들은 세계문학의 지평을 확장시켰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판매부진으로 제14권 이래 간행이 중단된 상태.

지학사의 「오늘의 세계문학」에 실린 작품은 거의 우리나라에 처음 소개되는 것들이다. 독일의 쿤터 그라스 등 몇몇을 제외한 대부분의 작가 이름도 기존의 세계문학전집에만 익숙한 사람에게는 생소하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인습이 불식되지 않는 한 출판사측은 경제적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하는 입장에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업적인 위험을 무릅쓰고 세계문학의 영역을 확장했다는 점에서, 그리고 그 작품들이 오늘 우리의 삶과 문학에 긍정적 역할을 해 줄 수 있으리라고 기대된다는 점에서 이 기획은 평가받고 있다.

—엄창호 기자
 1987/07/20 13